朝鮮日報 第二夕刊 十八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時急한低物價政策 政府近近對策樹立

經濟會議存續與否도考慮

【東京電話同盟】低物價政策의 實行은 國民生活安定의點으로보나 生産力擴充, 國防豫算의遂行見地로보나 刻下喫緊한 要務라하여 今回 內閣更迭의 理由도 太半 이에 起因하여잇다고보이므로 政府는 빨리 同問題에 着眼하여 時急히 그對策을 樹立하기로되엇다 卽 이에對하여 阿部內閣은 昨年末閣議와 物價委員의 懇談에서 低物價政策遂行에 關하여 다음 六項目의 基本方針을 決定하고

一、惡價格防止 一、物資動員에依한 國民生活不安除去 一、生活必需品의騰貴阻止 一、賃銀昂騰의抑壓 一、賃銀抑壓에伴한 生活難에對한對策 一、物價統制機構의改革

特히 最後의 項目인 物價統制機構의 改革에 對하여서는 更히 中央物價委員會의 强力的運營에 依하여 內閣에 經濟會議(假稱)라는 恒久的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各省의 專斷을 排하여 適正物價의 徹底遵行에 當하기로 決定하고 이 會議의 官制案을 目下企畫院에서 立案中이며 이것은 모두 新內閣에對한 引繼事項이 되어잇스므로 今後大藏, 商工, 農林, 鐵道, 遞信, 厚生等關係各相은 各各事務當局으로부터 從來의 經緯를聽取한後 問題의 重要性에 鑑하여 적어도 二月一日의 議會再開前까지에는 政府의 態度를 決定하여 中央物價委員會와의 關係 또는 經濟會議와 低物價基本方策에 關하여 協議하고 現政府의 施策을 確立하여 適當한 機會에 首相의 施政方針演說中에서 이를 闡明하기로되엇는데 政府가 今後 同問題를 如何히 取扱할것인가는 時局으로보아 極히重視된다

發生하드래도 恒常正式折衝을 行하여 對歐策을 講求할터 同時에 大使와公使가 隨時本國에 歸還하여 事態의變化에 適時對處하기爲하여 가장 重要한陣容을 築할것으로보인다

政務官도 減員

【東京電話同盟】政務官의 各黨配當은 前內閣에서는 政民兩黨各 十一名式 貴族院 小會派各二名式 이엇는데 政府는 政民兩黨을各 十一名으로하고 貴族院小會派는 各三名으로할 豫定인데 政黨方面과 折衝할 方針이다

交戰區內賠償問題 日本態度合法的

米外務省國際法專門家의見解

【華盛頓十七日發同盟】日米關係 惡化의 一因으로서 日支交戰地區內에서의 米國權益의 損害數十件에關하여 日本側이 交戰地區內의 事件으로서 米國側의 損害賠償의要求를 無視하고잇는事實이 列擧되어 國務省當局者들은 日本이實際로 損害의原因이되어잇는데도 不拘하고 그責任은 支那側에잇고 米國은 그 損害賠償을 支那側에 要求하라는것과 마찬가지다 라고하여 不滿의뜻을 보이고잇는데 國務省의 國際法專門家는 日本側의主張은 國際法에 따른것이라고 米國에도 同樣의先例가잇다고 左와如히말하엿다

日本側의主張은 國際法에따른 것으로 米國側에도 日本側의 主張을 裏書할數個의 先例가 잇다 例하면 米國軍艦은 일찍기 宣戰布告를 하지안흔戰爭에서 니카라과의 그레이타운과 멕시코의베라크루스를砲擊한일이잇는데 그時 第三國으로부터 損害賠償을 要求된데對하여 米國側에 責任이업다고 賠償을 拒否하엿다 이런 先例를 보면 日支事變이宣戰布告를 하엿든나 안하엿든나는 問題가 아니고 또 米國으로서도 日本에 損害賠償을 强要할수업게 될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日本側에서는 國際法上 問題가 따르지안는 明白한 損害賠償要求에 對하여 곳이것을 解決하려고 하여 若干의 寬大한態度에 나오고잇다

殘敵을追擊하는我精銳部隊(南支戰線大唐墟方面)

百八名行方不明

【倫敦十七日發同盟】英國海軍省은十六日시호스號以下三隻의 潛水艦이 沈沒되지나아닛는가고發表하엿는데 繼續하여 十七日에 이르러 이三艦乘組員將兵의 安否에關하여 다음과가치 公表하엿다

英國海軍시호스號(六四〇噸) 乘組將校五名 下士兵三十四名 同운디네號 乘組將校四名 下士兵二十六名 同스타핏슈號 乘組將校五名 下士兵三十四名은 目下行方不明이고 獨逸軍에게 救助된生存者의 氏名은 아직 不明이다

英駐伊大公使併置

【羅馬十七日發同盟】英國政府는 羅馬駐箚大使館參事官 노엘·찰스氏를 特命全權公使兼特派使節에 任命하엿다 英國의駐伊大使로서는 파-씨·로렌氏가 이미在任하여잇고 一國에大使와公使와를 配置하는것은 前例업는일로서 이런措置는 英國이伊太利와의 公式接觸面을擴大하여 如何한事態가

日米關係總括審議

米, 卅一日委員會서

006335

【華盛頓十七日發同盟】一月二十六日日米通商條約失効後에잇서서의 日米關係의推移如何는 가장 注目되고잇는바인데 핏드만上院外交委員長은 十七日同委員會席上에서 日米關係의總括的檢討를開始하기爲하여 國務長官의出席을求하여 日米交涉進捗狀態에對한 詳細報告를求하게될것이라고 다음과가치말하엿다

上院外交委員會는 來一月三十一日 定例會合을 行할터인데 席上에서 日米關係問題의 總括的檢討를開始할터이다 同委員會는 다시 헐國務長官의出席을求하여 日米間의 新條約締結에 關한 交涉의進捗狀態에 對하여 헐長官으로부터 說明을聽取한다음 各種의對日關係法案을 審議하고 이것을 決定하게될것이다 目下提出되어잇는 對日法案은 다음과가치다

一、日本이九個國條約을 違反하고잇슴에비치어 日本에對하여 輸出禁止를 斷行할것이라는 핏드만委員長과(民主黨)쉬웰바 委員(共和黨)이提出한 兩決議案

一、아메리카는極東에서 嚴正中立을 保守할것이라는 나이上院議員提出의 決議案

一、日支事變에 中立法을 適用할것이라는 지렛트上院議員(民主黨)의 提案 그리고지렛트上院議員은 外交委員會의 進展에關하여 上院外交委員會는 아마對日輸出制限에 關한 或種의 提案을 承認할것이다라고말하엿스나 日支事變에中立法을 適用할것이라는 自己提案의 成否에關하여는 말하기를避하고잇다

英, 揚子江開放歡迎

下院議員質問에首相答辭

【倫敦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後 下院質問時間에 체임벌린首相은 一議員의 質問에對하여 英國政府는 日本今回의 揚子江開放措置를 歡迎하여 左와如히 答辯하엿다

英國政府는 日本이 最近決定한 揚子江開放措置에對하여 이것은 全揚子江流域에서의平等한 通商의機會回復에對한一段階를 지을것이라하여 歡迎하는바이다 天津問題에關하여는 時間에流布되어잇는것가튼 新事態의 發展은업다

米, 航空機改善策

【華盛頓十六日發同盟】米國航空機建造所研究機關인 米國航空諮問委員會는 十六日 報告書를提出한바 同諮問委員會가 目下 研究中인 航空機改善計畫의 一端을 表示한 報告要旨는 다음과가트다

一、마그네슘 알미늄의合金을 使用하여 飛行機의構造를 從來보다 가볍게하고 또强化하여서 航續能力과 搭載力의增大를 圖謀한다

一、鑄型材料를使用하여서 飛行機製造에必要한 數千의 리벳트使用을廢止하여 從來巨額을 要하는 飛行機建造費의削減을 꾀한다

一、飛行機의安全을 確保하기爲하여 나래의硬化를 防止하는 新方法을 考案한다

一、現在의 까소린燃料보다도 [illegible] 點이적고 또安全한것을 發明한다

一、從來의飛行機燃料으로는 까솔린燃料의 六割은 排氣瓦斯로放出되어 그에 내르기는버리게되엇는데 이것의回收使用하는 方法을考案하여서 飛行距離의擴大를圖謀한다

一、푸로페라의濃霧裝置의改善을 圖하여써 操縱室의 空氣壓力을 常態를保存하면서 超高度飛行을할수잇는것을 [illegible]

獨蘇兩國에對備 羅『國王의堤防』構築

駐英大使館側의漏說

【倫敦十七日發同盟】루마니아에 對한 蘇獨兩國의 行爲는 依然 倫敦政界의 注目을끌고잇는데 十七日루마니아大使館代辯者의 漏說에依하면 루마니아에서는 匈牙利及蘇聯에 接한 北部國境數百哩에걸친堤防과 溝渠로된 國防線을完成하엿다고한다 이國防線은『國王의堤防』이라고하여 루마니아西北部를흐르고잇는 슈레슈河로부터 匈牙利側가까이 國境과 併行하여 부코비나地方에 뻐처가고다시 蘇聯루마니아 國境을흐르는드니에스테르河에따라 黑海에 達하고잇다 가롤國王은 이『國王의堤防』을 카르파티아山脈으로부터 流下하는 多數의 河川과 聯繫시켜서 構築하엿다고한다 부코비나 丘陵地帶에는 토치카가여게저게配置되어잇고 溝渠의 어떤것은 四十呎以上의 깁히와폭을가지고잇서서 非常한 境遇에는 直時氾濫시킬수 잇도록 하엿다 防禦線의侵入을 防止하기爲한 强化工事는 이

米, 七十六隻新造

四年間六億弗의建艦案

【華盛頓十七日發同盟】아메리카 海軍擴充問題는 連日議會를 떠들석하고잇던中 十七日下院 海軍委員會에는 [illegible] 사뮤엘 [illegible] 立場은 맛당히 多數의 [illegible] 을 通過하여 다 [illegible] 아메리카의 [illegible] 海上支配에 依하여 [illegible]

아메리카海軍은 今後四年間에 總額 六億二千二百八十萬弗을 投하여 代艦의建造를 合計七十六隻의 艦艇을 建造할 豫定이다 이에對하여 비슨海軍委員長은 他國海軍에 比較하여 웨 이와가치 多數의 艦艇을 建造코자하느냐고 質問하엿든바 보빈스는 政府當局은 이것은 國防을爲한것이라하여 回答을 拒否하엿다

商相, 秘書官決定

【東京電話同盟】藤原商相秘書官은 十八日 王子製紙總務課長 [illegible] 氏로決定 十九日發令을볼터이다

伊外交陣刷新

【羅馬十七日發同盟】伊政府는近近外交官의 大異動을 行하여 外交陣刷新을 斷行할터인데 그結果 다음과가튼 更迭을볼模樣이다

一、루-체映畵會社總裁 파우릿치(白耳義大使)

一、랄모在勃牙利亞公使는 白耳義大使

一、맘지無任所公使는 勃牙利亞公使

一、솔시오在葡萄牙公使는 유고슬라비아公使로

一、클레-제在蘭洲國公使는 瑞西公使로

一、보바스코在瑞西公使는 葡萄牙公使로

一、인델리在유고슬라비아公使는 日本大使로

一、마지스트라-티在獨大使는 勃牙利亞公使로

一、프레치오시在亞爾然丁大使 로자코노在白耳義大使 아우릿치在日本大使는 모두 本省으로

南寧敵前線에 多數의民團軍

【南寧十八日發同盟】南寧南面을 囊括하고잇는 蔣介石은 南寧當面의 奧地로부터 鎗軍을모아自身도 督戰에努力하고잇는데 이心中에는 새로編成된 多數의 民團兵이잇고 이들은 [illegible] 的으로 我軍에게 擊退되고 [illegible] 狀態이다 廣西省民團兵은 十六才부터

內務次官에 大達氏

警視總監에 萱場氏留任乎

【東京電話同盟】兒玉新內相은次官、警保局長、警視總監의三役決定에 따르는 內務首腦部의 人事異動에際하여 十七日午後八時半 大達次官을 招致하고 極力留任을 懇請한結果 十八日朝 大達次官은 諾否를回答하기로되엿스므로 同日中三役의 銓衡을마치고 느저도 十九日의 閣議에서 決定을보나 卽日發令하기로되엇다 그런데 大達氏는 大體留任할것으로 觀測되는데 留任하는境遇는 다음과가튼 異動이잇슬모양이며

◆警保局長에는 現土木局長 山崎巖氏가 起用될모양이고 土木局長의 後任에는 地方有力府縣의 知事가 轉任, 本間警保局長은 有力府縣知事에轉出한다

◆警視總監에는元警視總監萱場軍藏氏가 復活할모양인데 同氏의 辭意가 强硬하여 翻意치안는 때는 內務次官은 東京府知事岡田周造氏와 土木局長 山崎巖氏中에서 拔擢할모양인데 特히岡田知事가 有力하다 또警保局長에는 山崎土木局長이나 元警視總監 安倍源基氏中에서 決定을지을것이고 警視總監에는 大達氏의 留任如何에不拘하고 元警視總監 萱場軍藏氏가 復活起用되기로決定되엇다

應急覺悟를要請

팟시스트黨書記長演說

【羅馬十七日下午發同盟特派員發】過般 就任以來 沈默을지키고잇던 팟시스트黨書記長 뭇티氏는 十七日 팟시스트黨幹部를召集하고 뭇솔리니首相에 代身하여 重要演說을하엿다 뭇티書記長은 그演說中에서 팟시스트黨方針을 闡明하는바이다

一、伊太利는 現在의 時局에對하여 언제까지라도 消極的態度를 取하는者가아니다 伊太利國民은 이러한事態에 捕捉되어서는안된다 傍觀은 完全히錯覺이고

一、팟시스트는 必要에 應하여도 聖戰의 命하는바에 좃차 언제라도 卽時武器를가지고 일어설용의가잇다 그래서伊太利國民은 一旦緩急의際에 언제라도 일어설수 잇는 準備를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하고 特히健全한 精神이 가장必要하다

八面鋒

◇ 政變도 一過、이제는 議會에 注目이 集中。

◇ 政黨의 積極支持를 엇게되엇스니 議會突破는 無難。

◇ 그러나 對支政策案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이것이 發表되는 날 國民의 反響이 어떨지 豫期難。

◇ 白國境에는 또다시 獨逸이 八十八個師를 動員。

◇ 伊太利、新파씨스트黨書記長은 무리는 國民에게 應急覺悟를 要求。

◇ 獨伊兩國間에 速戰速決의 連絡이 잇는가。

◇ 그러면 蘇聯이 勿失好機라할테데?

◇ 學校는 增設하지만 入學難은 아직 解決되지 안흘 모양。

◇ 그中에도 中學은 志願者의 半分도 收容되지 못하니 큰問題。

◇ 이것을 보면 學校設立者도 더 생길터이언만!

人事·集會

◆李源甫氏(總督府社會教育課長) 慶南北, 忠南地方에出張中 十七日午後歸任

◆宮本元氏(總督府法務局長)東大招請으로 朝鮮의氏制度創設에 對한 講演을하기爲하여 廿日「가까쓰기」로渡東

名倉參謀歸任

【釜山電話同盟】第十九師團參謀長名倉 [illegible] 大佐는 十八日朝釜山上陸, 同七時五十分發「노조미」로 歸任하엿다

拓相秘書官決定

【東京電話同盟】小磯拓相秘書官에는 前拓務秘書官 別當好夫氏가 決定되엇다

西園寺公全快

【興津電話同盟】西園寺公의 病狀은 十七日急速히快하여 主治醫勝沼博士가 十八日午前十時五十分再次診察한結果 完全히 全快되엇스므로 同博士는 午前零時二十一分 興津發列車로 上京하엿다

各道土改主任官會議

增米計畫을說明

十八日總督府서開催

昭和十五年度부터 着手하는 大個年六百八十萬石의 總督府增米計畫中 耕種法改善과 並行할 土地改良事業은 二百町步以上의大規模事業은 總督府가 直接指導하고 小規模事業도 各道에서 測量設計及工事監督을 實施하기로되엇는데 中央과 地方의 連絡은 特히緊密을要함으로 十八日午前九時半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各道土地改良主任官會議를 開催하엿다 [illegible] 湯村農林局長으로부터 訓示가잇고 細見土改課長으로부터 計畫內容說明이 잇슨다음午後는 指示聽取事項으로 第一日의日程을 마첫는데 會議는明日로서終了된다 今般 會議全體를 通하여 注目을끄은것은 水利組合事業決定方法 再檢討 合理化 各道에 耕地擴張改良事業의 [illegible]

▲十八日(第一日)午前 農林局長訓示、增米計畫說明(細見土改課長) 同日午後 指示事項 聽取事項 意見及希望 陳述

▲十九日 協議事項

▲協議事項

一、水利組合事業計畫의 決定方法에 關한件

二、小水利組合의 指導監督에 關한件

三、旱害救濟事業臨時職員의 配置에 關한件

四、技術職員의 整備에 關한件

▲聽取事項

一、大地區事業豫定地區에 關한件

二、旱害對策(共勵關係)事業進捗狀況에 關한件

三、昭和十四年旱害對策事業進捗狀況에 關한件

四、道土地改良事業의 實施狀況에 關한件

五、道 [illegible] 事業에 關한件

▲指示事項

一、二百町步未滿의土地改良事業의 實施에 關한件

二、昭和十四年旱害對策事業의 促進에 關한件

(警務는 會議先席)

朝鮮文化의現代的理念·金基錫

人文評論 二月特輯號 (定價·50) 人文社 發行 (振替京城二八六三三番)

★新世代特輯★ 新世代의精神的指標·金午星 新進의作品世界·金南天 나의詩論 彷徨하는詩精神·吳章煥 抒情詩의問題·金光均

創作 霧街·朴啓甲 三代·鄭飛石 昏衢·金東里 밤·金永壽 連載小說 浪費·金南天

詩調의本領·趙潤濟

特輯 戰時下歐羅巴의出版界·프랑크·크리멘츠 音樂·라디오·클뉴·듀아멜 저-나리즘·줄날·드·상하이 特派員

創作月評·尹圭涉 求理知鳴 詩壇月評·片石村 文藝辭典 音樂時評

詩 李燦 辛夕汀 馬鳴

名著解說 構想力의論理·三木清·尹圭涉 文學史의方法·랑송·金煥泰 바리에테Ⅱ·바레리·申石艸

家族史小說의理念 現代小說研究Ⅱ 崔載瑞

할빈紀行 金管 金과文學 蔡萬植

謹賀新年 萬年中の御立引を謝し 本年も倍舊の厚情を希ふ 昭和十五年一月元日 ワイシャツ 折衿シャツ 洋裝附屬品 卸商 野井集商店 大阪市順慶町四

白馬御帽子製造 各種帽子及原料卸賣 販賣元 三德商會 大阪東淀川區本庄東通一丁目 電話北五五三八 振替大阪七三〇二七

官費生徒募集 朝鮮總督府遞信局遞信吏員養成所 京城府元町三ノ一
一、募集人員 普通科第一部生(高等小學校卒業程度)三百名 普通科第二部生(中學校卒業程度)七十名 航空科(中學校三年修了程度)二十名 工務科生 七十名
一、應募者年齡 普通科第一部生滿十四年以上滿十七年以下ノ男子 航空科生滿十七年以上二十五年以下ノ內地人男子 航路標識科生滿十八年以上二十年以下ノ男子
一、願書締切期日 二月二十日
一、詳細ハ本所又ハ最寄ノ郵便局所ニ問合セアリタシ

補陽 參茸補陰強壯水 高貴한芳香! 斬新한味覺! 神秘한藥效! 「良藥이苦於口」라는從來의觀念을打破하고 芳香과味覺과藥効의三拍子를完備한理想的의 參茸新製劑를이世代의젊은이들에게 보냅니다。末梢感覺을滿足식힐뿐이오 心身의健康에何等의寄興가없는 珈琲나 紅茶의飮用을斷然廢止하시고 味覺의滿足은勿論이오血肉과精氣를補하는 一石二鳥의效果가잇는本劑의愛用을勸합니다。(本劑五〇瓦入壹瓶이면參茸茶五〇杯以上이남으로價格에잇어서도 珈琲나紅茶보다低廉합니다。) 定價 二五〇瓦 參圓 五〇〇瓦 五圓 製造元 京城府禮智町一七九 天一製藥株式會社 振替京城一六〇三番

ニキビ·ソバカスに レポスキン 여드름으로 困難밧는분 여드름나는데는 여러가지原因이잇는데 이것의根本인顏面皮膚의調節을 안코는좀처럼낫는것이아닙니다 레포스킨은 여드름은勿論 쇠버짐 버짐, 무좀等의吹出物에까지도 現著한效果가잇서서 본바탕으로부터 곱게나서가므로 皮膚의에티와 美顏이한꺼번에됩니다 잔주름과 잔티업새는데 잔주름과 잔티는皮膚의疲勞와 生活力의缺乏에依해서되는것이므로 얼골의生活力의回復에 効果가잇고顏面을매끄럽고아름답게하는レポスキン에依해서비로소에티잇게됩니다 죽은깨나는분은 죽은깨는皮膚下面의메라닌에依하는것이라고 學者들이말하고잇는데要컨대皮下及顏面의活動이나 皮脂調節입니다 レポスキン은顏面의活力을旺盛케하고皮下의榮養까지圓滑케해서 分解消散하는理想的美顏藥用크림으로서三輪博士의苦心完成한것입니다 (各地藥店에잇스나品切時는本鋪로申込을乞함) 本鋪 東京市駒込千駄木町 キンシル化學研究所 名古屋市中川區八熊町 三輪博士創製·藥用クリーム

朝鮮家庭醫學全書 定價貳圓五十錢 送料三十五錢 朝鮮日報出版部發行

イヤモンド專門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丁目 電本局一九九

신경쇠약·불민증에 テーリン 發賣元 京城株式會社新井藥房

피곤을잇고 能率이나게하는 テーリン 東京 中村信治商店

所見表"作成의基準 冷情、公平을主眼으로

各學校의水準이均一치못한것은矯正

今日府學務課各校責任者에게指示

중등학교의입학시―준도 어느듯 임박하여스므로 경성부학무과에서는 해마다 말성을이르키기가일수인 소견표(所見表)문제에대하여 미리부터 유감이업도록하기위하여서 십팔일 오후한시부터 부청위원회실에 부내각공사립소학교의 책임자팔십여명을모아노코 이문제에대한 회의를열엇다

소견표는각소학교에서 상급학교에 지원하는아동에대하여 학력, 품행, 성격, 가정형편등에대하여 내신(內申)형식으로 원서에첨부해서 제출하는것이니만치 입학고사에잇서서 중대한참고자료가되는것인데 수많은학교에서 더구나 각담임선생에게 마껴저잇는만큼 학교와담임선생에따라서 수준을 통일하기가 어려울뿐아니라 객관성을 보증하기가 곤난하여 이때문에 말성을이르키는일이 한두번이아니다 그래서부학무과에서는이번에 폐단을 업새기위하여 소견표작성의 기준을명시하는 동시에 각학교와담임교원은 지원아동의 소견표작성에잇서서 언제나 냉정공평한눈으로대할것을 자세하게 부탁하얏다

永登浦管內各公立小學校 各町會別入學願書對照日

경성부영등포(永登浦)출장소관내에잇는 각정회별로 공립소학교입학원서대조일은 다음과갓다

二月十三日―本洞町
二月十二日―銅雀 黑石町
二月十四日―堂山町 上道町
二月十五日―新吉町 道林町
二月十六日―永登浦町
二月十七日―堂山町 花町

이르러금지을 자전거를 탄 부내홍제정(弘濟町)일백이십사번지 김재훈(金在薰)(三)이 갑자기길바닥으로부터 일편으로 궤드를 횡단하므로 급정거를 햇스나 때는 이미 늣저 충돌하고 말아 정은 머리에 치료두주일을 요하는 열상을 입엇다

다른"物品"것드"려"파는 "混賣"는 斷乎取締

總督府、各道警察에命令

식량공급의원활을 도모하기위하여 총독부에서는 각도에 통첩을발하여 혼식(混食)을장려하는중인데 일반가정에서는 당국의방침에 잘순응치안코 혼식을질겨하지안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배급기관에서는 쌀한되에보리 세홉식 석거서 팔기로한것을 기회로각상점에서는 일종의 강제매매가성행하여 여러가지 악폐를 이르키는 일이 빈번하다 즉 근자에 귀하다는 석탄을 팔때에는 비누를 붓처팔거나 숯(木炭)을 팔때에는 밀가루를 붓처서 파는등 잘팔리지안는 다른 물건을 붓처서 파는일이 빈번하다 물론 물건사는사람들이 석탄을사면서 비누까지 산다던가 또 숯을살때에 보리까지 사겟다던가해서 파는것가트면 아무문제될것이 업지만 사려는사람이 요구치도안는것을 귀한물건을 팔때면 반드시 잘팔리지안는물건을 껴서사지안흐면 안판다고 버틴다 물건사는사람들은 울면서 겨자먹기로 필요한물건을 사기우하여 그다지필요치안흔 물건을 억지로사게된다 이와가튼 정보를 접한 경무국에서는 여러가지로 그대책을강구한결과 이것은 불법한 강제판매가 분명하므로 쌀에다가 보리를 붓처서 파는것을제한외에는 다른 물건은 물품강제판매로 엄중히취체하도록 각도경찰부에 명령하엿다

强制販賣가 確實

三橋警務局長 談

이에대하여 총독부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석냥에 비누를껴서파느니 숯에 밀가루를껴서 판다는등의 보고를밧고 이것을 물품강제판매로 엄중히취체하라고 명령하엿다 시국경제판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갓의한수단을써서 부정한이익을보라는업자들이 빈번히 잇슨것은 쌀에다가 잡곡을붓처서 파는 것은 식량을공급하는데 원활을 도모하기위하여 정책상 불득이한사실이거니와 다른물품을 그런방식으로 파는것은 강제판매라고 보지안을수가업다 그래서 모양인데 이것은 총후국민의상 언도덕상 실로한심한일이다

高城 稅吏瀆職事件

寬大한判決言渡

四名執猶、四名無罪

고성(高城)세무서장 좌좌목유장(佐佐木由藏)(三)등 팔명에관한 증수회(贈收賄)사건의 언도공판은 십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려 삼본(杉本)검사관여아래 소림(小林)재판장으로부터다음과가치 네명은 집행유예 네명은 무죄의 관대한판결을내렷는데(괄호안은 구형)

▲佐佐木由藏懲役十月(一年半) ▲上條精一郎同八月(一年) ▲李永浩同八月(一年) ▲金東潤同八月(一年)=以上四名三年間執行猶豫 ▲崔承道無罪(罰金百圓) ▲李東圭同(同) ▲朴載奎同(同) ▲鄭海龍同(懲役六月)

産金令改正 趣旨徹底座談會

종로경찰서에서는 십팔일오후 한시부터 동서안에 관내의 귀금속상, 파사, 입치(入齒)업자, 함금(含金)광산물매입업자, 제의업자등사십여명을모아노코 보안주임주재로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일부개정에대한 설명을하는 좌담회를 열엇다

이는 작년이월이십구일부터 실시된 동령일부개정에따라 전기류병원지도 금후는 금사용에대하여 당국의 허가를 요하게 되엇슴으로 특별업자에게 그허가수속가타를 철저히 알리려는뜻에서 개최한모양이다

電車、自轉車衝突

십칠일밤 여덟시이십분쯤 경

興亞勤勞報國隊 朝鮮도今年부터參加

◇……專門、大學生에서百名選拔滿洲에派送

청년학도들에게 넓다란 대륙천지에서 흥아정신(興亞精神)을 체험시키는 기회를주려는 흥아근로보국대(興亞勤勞報國隊)는내지에서는 작년여름처음으로 전문대학생들을추려만주국에보내어 한달동안 근로작업에종사케한결과 만흔효과를 거두엇는데조선에서도 금년부터 참가하기로총독부와 문부성 만주국정부와의 사이에 이지음 허가성립되엇다 조선으로서는 사립남자전문 대학생중에서 약 백명을 추려서오는 칠월중순부터한달동안 예정으로 만주에보내여 법문계(法文系)학생은 로동공사기타 공사에 종사하게 하고기술계통학생은 특수공작 작업에참가하여 흥아정신을 체득케하려는것이다 한편 만주국에서는 효과를보아서명년이후는 해마다 적어도 이백명으로 늘리기획을 지금부터하고잇다

猛威의 慶南痘禍

十七日現在發生累計五十八名、咸南의次位

痘苗不足으로道當局唐慌!

【慶南支社電話】 경남에 만연하는 천연두는 의연그힘을 모르고 발생하여 경상남도내에는 지난십칠일까지 통영군내에서 네명 함안군내에서 네명 발생하여 현재발생자가 오십팔명으로 그가운데 사망자가 세명이잇서 함경남도의 뒤를이어 가지가 잇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방역에위협을 느끼게되는것은 종두에 업서서는 아니되는 두묘(痘苗)가 부족한것으로 관계당국자들의근심이 되어잇다 현재발생자를 서별로보면 다음과갓다

▲昌原二十一名 ▲統營十二名 ▲居昌六名 ▲陜川四名 ▲固城四名 ▲晋州三名 ▲鎭海二名 ▲咸安二名 ▲咸陽一名 ▲金海一名

金川에도發生

황해도김천군고동면(金川郡古東面)에사는 자동차운전수 신용원(辛用元)은 수일전부터열이나드니 십칠일에는 얼굴에발진이 되엇으므로 『듯리』를 운전하여 개성(開城)도립의원에가서진찰을 받은결과 천연두가 틀림업스므로 그대로입원하엿다

京畿道는 廿名

移動種痘隊도逐出動

최근 수일간 부내에는 매일가치 천연두환자가 발생하여십팔일 현재로 이미 열세명의환자가생겻다 경기도위생과에서는 십칠일부터 방역관(防疫官) 경찰관 및 부내오십여개소 정회를동원시켜 검진(檢診)과 종두로 방역에진력하고잇는데 십팔일에는 이동종두대가 본정서관내에서 종두를시작하여 오후한시까지 삼만오천명에게 종두를 시행하엿다 그런데 이번천연두는 부랑자에게 가장 만흐므로 부내각서에서는 각기 부랑자를취체하여 종두와검진을하게되어 본정서에서는 십팔일 새벽에 부랑자 팔십여명을 유치장에 유치하고 일백오십명에게 일제종두를하엿다 또한 십팔일현재 경기도내 전부의 천연두환자는 스무명이다

歸還軍馬慰勞會

廿一日龍山師團司令部서開催

이번지나사변이 이러나자 국토부대와가치 출정하여 북지제일선에서 빗나는무훈을 세우고 도라온 『말』들에게 그동안겪거온 고생을 다소라도 위로해주고저 조선애마회에서는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의 공동주최로 귀환군마위로회를 가지기로 되엇다 위로회는 오는이십일일 오후두시부터 용산(龍山)사단사령부에서 열리게되엇는데 특히 많이 가지고오기를 바란다고한다

京城儒道會 不遠間創立

申錫麟氏等有志意見一致

황도정신을 지도정신으로하고 허물어저가는 유도(儒道)를 다시일으켜세우고자 십팔일경성부청 의원회에서 경성부내에 거주하는 유인회 회장 신석린(申錫麟)씨외 십여명이모히어 경성유도회의 창립건에대하여서로 여러가지로 의견을교환하엿는데 가까운장래에 창립총회를 개최할것을 가결한후 동네시경에 해산하엿다

X光線完備 大京齒科醫院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③三〇二〇番

內科 神經科 專門
李重澈醫院
主治醫 醫學博士 李重澈
世專醫學士 南命錫
入院室完備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電話光③二二四〇番

이건暴利아닌가

東京城驛、東幕에산덤이가치싸힌長斫

한차고에二百圓貪利는普通

경성부 심상마농의 가정에게 울려보로서 적지리를 차지하는 장작은 요지음 무섭게 오르는 동경성역과 동막(東幕)두곳에 모두 더쌔허 노흘자리가업는 십팔일부터 이십일까지 사흘동안 장작운반화차의 운전을 중지하기로되엇다

이번겨울에드러 매일평균 수물다섯차식경원선(京元線) 경의선(京義線)으로부터 서울에드러와서 경성역과 동막역 두곳장작취급장에쌔어내리게 되엇는데 요지음에는 드디어 산덤미가치 싸허서 화차가 드러와도 풀어내놀수업는 형편에 잇스므로 하는수업시 철도국에서는 이십일동안 장작화차운전을 중지하게 되엇다

장작시세를 알어보면 한차만에 삼백원으로부터 사백오십원까지이며 한평에는 이십원가량인데 한차판에 평균 이백원가량은 이익을보고 팔고잇다

철도국에서는 이와가치 장작이 만히드러와 잇슴에도 장작갑은 여전히 비싸게 팔고잇스므로 장작장사들이 너무도 폭리를 취하고 잇는데 대하여 혀를내두르고잇다

竊盜兩名逮捕

청주(淸州)출생 주소부정인절도전과삼범 김가봉(金佳鳳)(二三)과 옥천군안내면오리(沃川郡安內面五里)전과 이범 김운배(金雲培)(二三)등은 형무소에서 한께나와 서울로가서 도적질로 돈버리를하자고 꾀하고 올라와 여러곳에서

氏制度實施압두고

戶籍事務協議會開催

이월십일일부터 실시되는 씨제도(氏制度)는 호적부에 일대 변혁을 이르키는것으로 호적사무가 대단히복잡하게될으로 총독부법무국에서는 각지방법원과 동지청으로하여금 오는 이십일경부터 이월십일경까지 관내부읍면호적계서기를 한곳에모아놓고 관계법령의취지를 철저히하여 호적사무에 통일을 기하도록 협의회를 열기로되엇다

트럭小兒轢傷

專賣局工場의 初等敎育擴充

전매국에서는 종래부터 공장근무원을 보통과 특별과로나누어 소학교의 과정을 수료치 못한자에게 대하여서는 매일한시씩 실시하고잇는데 이들종원이 점차증가하는 경향이잇스므로국에서는 이들종원을 우대하여일층효과를 내기위해서 한층향상을 도모하기로되엇다

全南産林野苗木 北支로大量進出

【全南支社電話】 화북교통주식회사 천진철로국(華北交通株式會社天津鐵路局)에서는 금번전남도산림에대하여 조림용묘목을 대량주문해왓는데 산림과에서는 방금 조사수배중으로 불원내어 발송하게되리라 한다

三角町에盜難事件

부내삼각정(三角町)오십삼번지 송인수(宋仁洙)의집 조용석(趙容錫)의방에는 십팔일 오전네시부터 여섯시까지 사이에 도적이들어와 현금육백이십원과 양복『코-트』등 삼백여원어치를 가저갓슴으로 본정서에서는 범인을찻는중이다

緬羊大增産計畫

【全南支社發】 제주도(濟州島)개발은 국책상절대필요하여 수년전부터 호주(濠洲)에서 면양을 일백여두의분양(分讓)을노케되엇스므로 금후오만두목표로 대증산계획이라한다

ツカダニのネクタイ

今夜의放送

第二放送 ▲午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二〇分 講演 ▲同八時 (東)바이올린과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同八時四〇分 (裡)南道歌謠 崔淑子、申彩鳳 ▲同九時 明治大正名作라디오文庫(四)『愛의凱歌』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二)

色鉛筆

경전의 『급행빼쓰』가 개점된후부터 다라운 조건 (결국말하자면 인색하다는말이겟지) 으로해서 일반부민의인끼가 뚝떨어진것은 말할것도업고 ▲그때문에 몃새만『급행빼쓰』가 차장과운전수밧게는 타는사람이업는 빈차만 공연히 뗑뗑거리고 시중을횡행한다고 조소가여간아니데 ▲이와는반대로 종로오정목에서 동앙정으로가는 빼쓰는매번승객이 수백명씩 몰려들어 차를어더타기가어려운것은 소리를해가며 떨을빼는것이 예사이다 ▲여기에도 승객을마치 모리군모리하듯 행렬을 지게하니 ▲그래 이것이 승객에게생색내다는 쎄-비쓰란 말인가 ▲『까스한방울 피 한방울』이라는 국책선표어는 어데다집어치우고 승객업는 빈차를운전하는 심사는 무슨심사이며 사람을 『간스메』통에다 집어너라시피 처싯는심사는 어쩌자는 심사인가 모든도 이러케심해서는 어처구니업다 ▲아차 이젓데이새빠쓰는까스냄새를 쓰는게 아니라 냄새나고 약한 『아세치린』이엇다

스포-츠

高專中等氷上 豫想紀

第三回全朝鮮高專中等氷上『스피-드』『스케-트』大會와 第八回全朝鮮中等氷上選手權大會는 來二十日、二十一日의兩日間 開催되는바

▲五百米 五百米는 『세와』行하기로되엇는데

東洋大會代表 詮衡委員會서決定

日伯水泳競技

朝鮮滿洲遠征計畫

立敎 30 (1317―1610) 26 테드마스

立敎籠球軍來朝

五戰三敗의記錄

運動界人事·集會

淋巴腺結核 (나력) 療病法의實驗

融金保担物建地土 營業項目 ●土地建物擔保貸付 ●土地家屋賣買紹介 ●土地家屋評價鑑定 ●火災保險代理業務 東京建物株式会社京城支店 黃金町二丁目五五 電話本局1381.1681

各藥案內 淸痰丸 五淋丸 落梅丸 五香丸 風痰丸 白龍丸 淸痰丸 東都製藥合資會社

カゴメ ケチヤツプ 最上の品・最大の売行

貧血に ハリブマルト HALIBUMALT 效果 本位

朝報案內 帽子店急讓 募集 洋服 支部長募集 地方事務 洋服店讓渡 월경 금자옷고름 カメラ 文化住宅設計 東洋圖工社 急告 特約店 手足

治療家短期養成 日滿獨英米佛 刺戟療法 無試驗開業 奧村療法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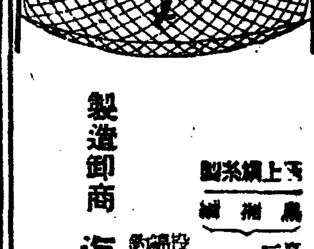
各種ミシン 商工省推定 優良國産 特許ヨトロールミシン アイデアルミシン カタログ進呈 鮮滿各地ニ販賣店有 楠商店

上等綿網 海鮮商會

ぜんそく 百日咳 アスモン錠

탁한피를맑게하며 여러가지병독을없에고신체를튼々이하기로유명한약 온해초정(海草精) 이제일이다

ランランポマード 二千六百年부터의물치장은高尚한ランラン으로



隨筆 避難 (上)

片石村

섣에는 어쩐지 옷이라도 갈아입고싶다. 아마도 어린때부터 섣에는 때때옷을 입던 오래인 習慣때문이리라. 벌써지난일이지만 舊歲에도 또 잘을자고 눈을뜨니까 어느새 窓밖에 해빛이 비추는데 섣이라고생각하니 一이라도 가라입고싶엇다.

一年치고도 좋노라보는 날이 드믄 우리職業으로는 正初의 閑散하던날은 當者가 어떠케 區分해야조흘지 머지를程度로 바가운賜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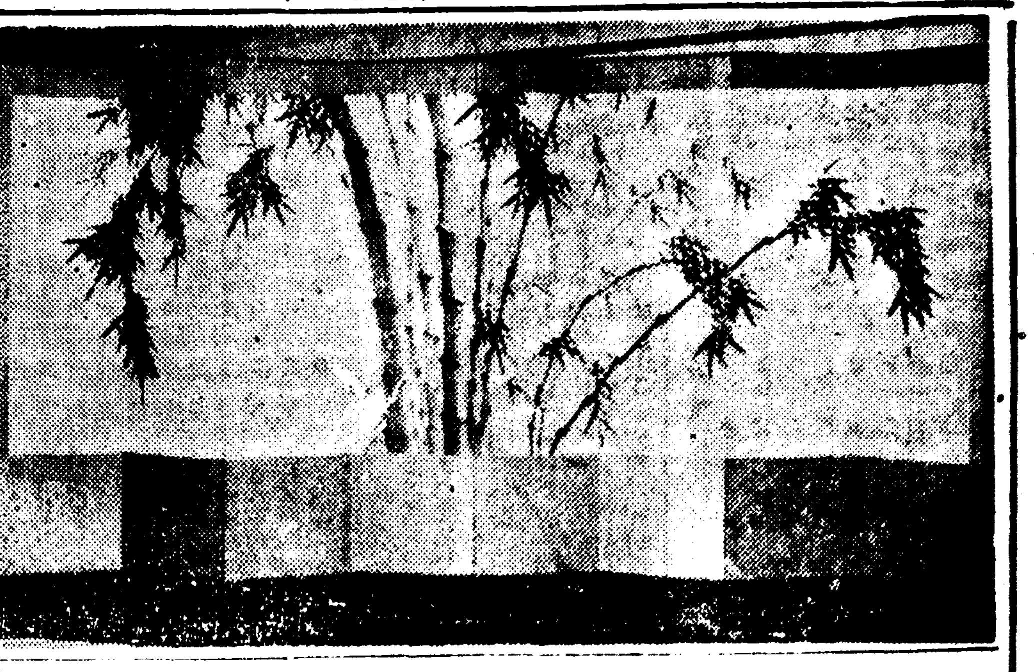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마치 오래간만에 맛난웃임상을 아페노코 궁리하듯 이正初를 어떠케 잘利用할까하고 섣달初부터 이리재고 저리재고 해보앗다.

그結果는 위선 그동안은 家族을시골로좃차보내리라했다. 家族에도 공부나 思索이 도모지 잘나가주지안는 原因을 家族에게 돌리군 하던터이라 이기회에 完全히 孤獨을회복해서 이 수두룩한 時間의賜物을 한번 마음대로잘써보리라했다. 故鄕이아니어던을 갈리어던는

家族을 여러가지 口實을가지고 不平을 들려가면서 東에 올려보내노코 도라서던발은 어쩐지 [illegible]에서본 歐洲戰亂勃發當時의 倫敦市民의 避難列車랑 그런것들조차 聯想하면서 輕快해젓다. 다만地位가 거꾸로되어서 가 사람이 避難民이아니고 말하자면 내가避難民이엿든것이 틀린것갓다. 이런 避難民은 必是 『이글렌드』村어갈지라도 마나님네의 同情을 잃었을지 안다.

다음날부터는 浪漫하는기분으로 이곳저곳 册舍에 들어가 그동안가지고 싶던 册들을 젓어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册床우에 窓들을 차하노코는 正初를 期하여 이 遊觀의 "토치카"속에 衆分精神統一하리라했다. 그래서 나는 多少少年파가튼 興奮을가지고 섣을기다리던것이다.

『아스파-쓴』의 이름이 잇[illegible]가 이처럼 錯覺속에서는시피 現代라는 機械속에서는 사람들이 잠시 그自身으로도라와보는 말하자면 靈魂의鄕愁에 가는것이 더욱必要해지는것은 어덤한것도업다. 나는 어디선가 現代의 都市에는 哲學이실 餘裕가업다고 한일이잇다. 그말을 했을때와도 도달해서 오늘와서는 가튼 絶望을 [illegible] 느꼇다. 그러니까 도다가는 生活이라는 機械속에 잇는동안은 우리는 더 견듸를밥 餘裕조차업시 좇차도라가야한다 어쩌다 잡은 機械가틀것도 어느새 機械가틀속에 휩려버리고 말곤한다. 이런데서는 [illegible]



△竹林(大屛風) 一洲 金振宇 (本社後援·文人畵展覽會에서)

学藝

一等當選論文 新世代의精神 ③

人間性의信賴

鄭義浩

以上에서 우리는 우리가 問題로하고잇는 新世代의性格을 原理의喪失과孤立性으로써 特徵지우고 또 極히近違的이엿스나 그것은機械的, 世紀的性格과의 關聯미테서 理解되어야함을보아왓다. 그러면 新世代의精神은무엇인가? 新世代의 理念은엇던것이어야하는가? ——우리들의論點은 當然히 이곳으로推移치안으면안될것이다. 若干의 語弊를 두려워하지안는다면 여지까지 우리는『짜인』을 보아왓스나 여기서는『졸렌』으로 생각해야한다고할수잇슬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主觀的希願에 흐려서는 안된다. 어데까지던지

現實 의具體的諸條件에 依據하는同時에 또한 한거름 現實을超越하는데서 비로소 可能한일이다.

新世代의精神! 그것은 形式的으로論하여 上述의 混亂相을 超克할수잇는 새로운原理의 探求確立과 맛孤立性의 止揚에잇다고할수잇다 그러나 이러한抽象的인形式論理는 우리에게 至極히 當然한 또한 明白한事實이다 具體的인것만이 恒常 實踐的意義를 主張할수잇슴을 우리는알고잇기때문이다. 우리는좀더 實際的인것에 具體的으로 近接하지안호면안된다. 어느意味로보아 現代와가치 人間과人間의對立이 多岐하고 複雜한時代를 우리는 차즐수업다고할수잇는것이나 一方 現代와가치 人間關係의對立이 深刻해지고 個人과團體의關係가 不明瞭하여진때를 또한일찌기 알지못한다고도 할수잇다. 이는 最大公約數的 存在로서의

人間 만을 對象으로 하려는 世紀의 要求와더부러 여지까지의『人間性』은 解體되고 사람은『汎人間』으로써의 危機에 直面하여 共通의分野가 擴大된것에 基因한다. 일찌기 人間의危機란것이 다呼되엇는데 그는勿論이러한人間의『꼰지숀』의 變化와 關聯하여 理解되어야할줄안다. 바그로世紀의 거칠은呼吸마안으로 人間의『꼰지숀』의 變化를 所與의條件으로하고 그世代의行路를出發해야하는新世代의精神을 나는 人間性에 對한 信賴의精神이라고 表現하고 싶다.

이信賴의精神은곳 人間性에對한 愛情의精神이고 生活者의精神 새로운適應의 精神을 意味한다. 人間과 人間의發展에잇서서 참다운것 아름다운것에對한 信賴感을두려워하자! 이것은 어데로보나 高貴하고 崇嚴하고 深刻한 理念이라기에는 너머나 新鮮함과 探究的맛이업는지 몰은다. 그러나 하나의理想을 우리가 調詞할때 그것은 그外的崇高性 高邁性에서만 評價되는 것이아니다.

現實 과의調和미례서 現實에입서는것만이 참다운理想일수잇는것이나 우리는 思想에잇서서 早急完成한것을 알지못한다. [illegible] 理想이란 結局 未來에잇서서 現實되기를 現在에잇서서 保證된現在 [illegible]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盆梅
押　灰韻部(古詩可)
期限　一月末日(薄謝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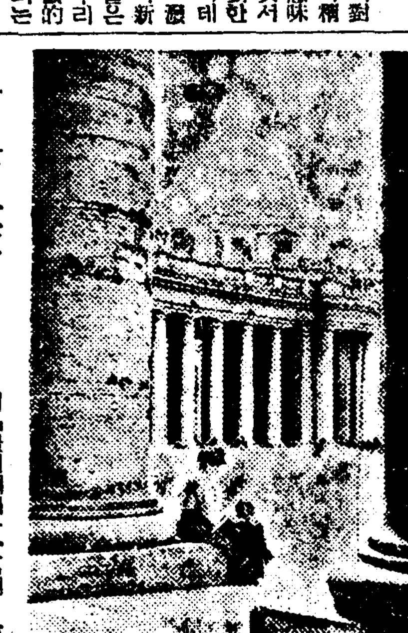
의 理念의일커름이다. 人間性에對한 信賴의精神 愛情의精神은 아닐지모르나 現代와가튼 時代的環境에잇서서는 가장『꼬지티-브』한 生의 態度라고 生覺된다. 勿論 여기에 信賴라함은 한낫 感傷的觀念으로서의 그것을 이름이아니다. 아무런 誇張도업시『生活의實與』로써 가지는 信賴를 가질려면 먼저『生活者』이여야하고 또 人間의眞實스러운것 아름다운것에對한 肉體로써 느끼는 愛情이 업시는 바랄수업다는 意味에서 이것은 生活者의精神이고 愛情의 精神인것이다.

歷史 란것이 斷絶이 업고 따라서 人間의 滅亡의날을 우리는想像할 必要가 업다면 우리는人間性의 發展의 無限性을 疑心할必要가 업다 感傷的 厭世主義를 問題로 하지안는限 우리는人間의[illegible] 觀念에對해서는 마당이 [illegible] 憎惡를 품어야한다 그러나 憎惡란 眞實스러운 愛情잇는者만이 享有할수잇는것이다. 愛情의反對는 흔히 生覺되는바와가치 憎惡가아니다 愛情의反對는 實로『無關心』이다 人間性에對한 참다운愛情을 느끼는者만이 그愛情을까닭게 또한憎惡를가질수잇는것이다. 人生의眞우에 自己의肉體로써 부딧처攻迫하는 生活의眞摯性이 업는 無關心에게는 愛情도憎惡도 잇슬수업다 여기에信賴의精神—愛情의精神의 積極性을 우리는 發見할수잇슬것이다 生의努力이 外部에向해『네가티-브』한態度를 가지는때에도 그根底에 기픈

愛情 과 殉教者와가튼信賴 缺如할때 그는概念的이고 觀念的인氣分에지나지못하다 生의積極性이란氣分的인『네가티-브』에 잇는것이아니다. 所與의事實을 優先的實대로受理하고『生活』해나가는 屈伸性 彈力性에 우리는生의頑强을發見한다 이러한屈伸性 彈力性은 기피透徹된信賴와 愛情이 機能하는 하나의 特徵이다 이意味에서 信賴의精神—愛情의精神은『道德』와는 偶然히區別되어야하는『適應』의精神이라할수잇다. 特히 現代로는 特定的時代圈은 一切의權威를拒否하고 原理의喪失과 人間의孤立을 招來한것에 생각이 미칠때 時代의 아들로서의 新世代가『페시미즘』의 奴隷가될이업시 時代를 誠實히 삶으로써 스스로의 生을 眞實히하고저할진댄 이러한 意味의 人間性에 對한 信賴 愛情 이외에 果然 다른무엇이잇겟는가! 困難한 時代일수록『人間은 오로지自己自身의 人的인委態를 歎賞해야한다』

歎賞 할때 그것은 憐憫이아니다 人間의 委態 一般을 歎賞해야한다 『포이엘바하』의 말이 다시한번 追憶되어 마땅하다고 生覺한다

世界의귀



바치칸에 大火 損害數百萬弗

【羅馬發同盟通信】『바치칸』市의有名한『산·로-렌쏘』敎會는 지난초하룻날에 불이나서 壯麗한 [illegible] 그宮의 公式『레셉슌』에쓰는 그宮의 大『홀』도 大部分이 燒燬되엇다 消防隊의必死의 活動으로 이敎會에 保管된 多數의寶物은 모두 屋外로 끄내왓다 이번火災의損害는 數百萬弗의 巨額에達하리라한다 (寫眞은 火災의害를입은『바치칸』의 一部)

★—피카소와觀覽者 ❶ 現代世界畵壇의 旗頭라고도 일커름『파블로·피카소』의 展覽會가 지난年末에 紐育近代美術館에서 열리어 一週日동안에 一萬五千名의入場者를 내엇다는 이方面의 記錄을지엇다 대체『피카소』는 무엇으로 이러케 사람을 끄는 것일가? 이그림의題는『肖像』인데 보는 사람마다 興味잇다고한다. [illegible] 아마『피카소』가 最初流行을아리넘러고 무엇이쓰나 보다.

讀史餘錄 朝鮮武士小史(二)

安自山

花郞武士는 十五六歲의 少年으로서 恰似 西洋武士의花公子와 가튼것이다 이花郞武士團은 數百人 또는 數千人의 團員으로 組織한것으로서 그氣風는 忠孝를 높히고 必要하면목숨을 鴻毛가치 버리는데 目標가잇섯다 世界歷史에도 比하기드믄 獨特한이氣魄을 가진 團員이 한번 戰場에서면 不勝이면 死요 不死면 勝이다. 그러므로써 그들의忠魂義魄이 發揮되어 그結果로 드디어 新羅는三國統一을 이룬것이다 이武士團에다 서誓條目의戒命이 잇스니 아래와갓다

一、事君以忠 (忠)
二、事親以孝 (孝)
三、交友以信 (信)
四、臨戰無退 (勇)
五、殺生有擇 (仁)

西洋武士에도 武勇 忠義 寬仁 [illegible] 여섯條目이 잇스나 그들은 武勇으로써 首位를 삼아 前驅에 흐르기 쉬웟다. 花郞武士團은 忠孝로 首位를삼아서 即國家로써 그根本을삼엇다. 그런고로 武俠奉公의 心德이 구더서 合心公共心이 업고는 武士資格이 업섯든것이다 高木武의 著述한『日本武道』에는 西洋武士道는 自信自重의風이 업지안지만은 그것을特徵으로 드러보일것이업다 花郞武士道의 公共心은 실상 特性中의 特性이다 일찌기 花郞 孝宗郞이 孝女 知恩을 尊尙이여겨 數百石을 내어주니 그團員數千名이 또한各各 一石式을 喜捨하엿다 金令胤이 戰場에나가 그아들盤屈에게말하되 爲臣에 莫如忠이오 爲子에 莫如孝니 只今네가 나가죽어라함대 盤屈이 飮泣應諾하고 賊陣에突入하여 力戰而死하엿나니 이러한實例는 限이업다.

이런 例實을 미루어보면 旣往의 武士精神이 얼마나强烈함을 알려와 當時의 文化는 武士道의 支配下에서 發展한것이오 外來文化 가령 佛敎가 主體로 指揮한것이 아님은 넉넉히 알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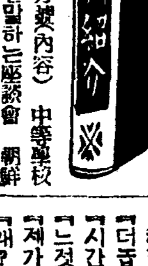
寶藏王二年에 蘇文이王曰 三敎譬如鼎足 缺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이라하여 我의智殿을 [illegible]히기위하여 求한것이다. 當時僧侶들이 外國에留學하여 佛道를 硏究함에도 [illegible] 所望이오 佛陀그것을 爲한것이 아니엿다 [illegible] 我의 戒命을 외오다가도 國家에 有事한때에는 十年伽裟를 一朝에 버서버리고 數百數千의 僧軍을 指揮하여 戰地에 나가서는 血海에 投死하엿다.

外來文化

近日 人士가 新羅美術品을 말할때에 문듯말하되 그때의 文化는모다가 佛敎의產物이라하고佛僧을極口讚頌한다. 이것은 主客倒置의 생각이다 當時 그高節壯烈한 武士의 忠義가잇고 外來文化에同化될것이 아님은 史實에비추어 더욱 뚜렷하다. 위선 佛敎는 朝鮮古來의 常道가아니라하고 佛敎實成者 異次頓의 殉死로 徐徐히 融和되어 佛敎가 外文化가 [illegible] 利用厚生의 產物이다. 그러므로 固有文化던지 外來文化던지 모두 自己를 主體로한 作하엿다

006336

新刊紹介



▲女性 二月號(內容) 中等學校合格秘訣을말하는座談會 朝鮮女子賣買史 편지讀本 하르빈白系露人女學生生活記 職業紹介所窓口에비친女性風景 小資本家庭副業成功秘訣(特輯 養鷄·養蜂·養兎)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少年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ノ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七)

金萬善作　洪祐伯畵

(여비를 생각지 안는놈 잿스실만놈!) 하고 단념도 해보려 하나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도리어 아쉬어간다 엥씨 걸친 예몸만 하여도 아팔이 속만 써기지안엇든들 진작 떼나무래도 치분이 되엇슬것이 아니냐. 메북주인에게 빼기고 겨우 품삭으로 십원을 박는게야 배를 탄 젊은남녀는 돌아갈 생각들을 안는다. 쏘군쏘군 얘기가 끈치지를 안는다 아래스강 철교에 기차가 지나간다. 막차인 모양이다 간간마다환한 불비츤 어둔 장막을 후해 아롱아롱 까분다. 기차가 지내가자 『뽀-트』구락부의 전등이 마지막으로 꺼지고 어둠ㄷ 한층 더 지러젓다. 사방은 죽은듯 고요하다 배스머리에 거슬리는 물결 소리만 찰삭 찰삭 가늘게 또렷하다. 『혼자 살자구 이지랄인가』 혼자 중얼거리고 그는 한숨을 짓고 하늘을 처다본다. 아까보다도 수가 늘어충충한 별들은 제각금 반짝인다 하늘이 가깝게 내려 안젓다. 가만히부

의 얘기는 또 게속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영 분간할수가 업다. 노를 슬슬 저며 지영호는뒤 여온길을 머물 생각을 안는다 보지 안어도 지친일거이다 그는 야금야금 외로 향해 노를 젓는다 동리에 남은 전등 하나 마저 노파지는 장변 언덕넘어로 숨고 배는 어느듯 은하수밋까지 와잇다. 이때 멀리서 여자의 음성이 들려 온다. 지영호는 귀를 기우린다 누구를 찾는 모양이다 여자의 부름에 뒤이어 어린애의 부름이 끄리를 단다. 차츰 가까워지는것 갓다. 아버지를 부르짓는다 귀퉁한 어둠속에서 부르짓음은 떨린다. 어린애의 목청은 길게가련하다. 다시 머리진다 때 오래 강변에서 헤메인다 가까워 젓다 또 멀어진다.

(누가 물에라도 빠졋나?)

지영호는 쉬엇던 노를 옴기다. 반동적으로 그는 은하수 긴다 뒤로 더울라간다 정말 자를 살사건이면 시끄러워진다 자기의 이러한꼴을 뵈기도 짓칠라 은

는 비탈에도 우수수 쏘다저강물을 끄러 노켯만 갓다. 별안간 동쪽 하늘에서 별하나가 꼬리를 달고 바로 앞산 넘어로 떨어진다. 그 위에는은하수가 강의 허리를 가로질러 다리를 노앗다. 지영호는 다시 동리로 눈을 돌린다 캄캄한속에 호미하게번진 다만 하나의 불비치 떠일뿐이다. 그의 집에서 비치는전등일것이다. 불연듯 또 마음이 설랜다. 점롱이가 틈어와 잇슬지도 모른다. 그는 가는 기침을 짓는다.

『넘어 느젓는데쇼』

하고 회장안에 말을 건다. 그러나 남녀는 그대로 쏘군대일뿐 못들은 모양이다. 또 한번

『고만 노시죠』

하니 그제서야 회장안에서는

『더좀시다』

『시간이 늦엇는데쇼』

『느젓스면 상관잇소』

『제가 재미업스니깐 그러슴죠』

『왜?』

회장안의 목소리는 좀 거만해진다.

『순사에게 들키면 혼날테니깐 그러슴죠』

이말에는 아무 대답이업다. 여자가 가자고 이러서는 눈치다. 그러나 회장이재져지고 사내만 나오더니 지영호의 손에 무엇을 쥐여준다.

『저-원로 갑시다』

하고 남자는 다시 회장으로 들어간다. 끄림을 모르는 남녀

하수도 패덥어진데서 배를머춘다. 아버지를찾는 애달븐 여인의부르지즘도 뚝그친다. 아침해도 동쪽산우에서 머리를 내밀때 밝은해人빛을 기하는듯 말없이 남녀를 강건너 마을로 시려다주고 천천히 그는 동리로 향해노를 젓는다. 새젓동을 실은 늘배에서는 아츰을 짓는 모양이다. 늘배중간 새젓독틈에서 바가지를 휘팔이 드나든다. 강물을 퍼올린다. 배에서 솟는 가느다란 연기는까뭇까뭇 흔들린다 곳 지여진다. 그 염배에서도 상륙잽이사공이 기지개를 피우며 머리를 든다. 둥 둥 가칠한에서는 널을 깍는 자귀소리가 부즈런하게 들려온다 비단결 가튼물결이 파르르 잔주름을 잡는다 동리로 올라가는 길에 지영호는 여러사람과 마조친다 물동이를인 여인을 제치고 물장수와 마조친다 전에 업든인사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를안는다. 그는 새삼스럽게 실망한다 어제人밤에도 점룡이는 돌아오지를 안흔 모양이다 영 나간 놈을기대리는자신이우수워도진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 그는 아들의 일흠을 부를만 하엿다 아들은 번듯이 제방에 누어잇지를 안흔가. 모든 감정이 씨슨듯 사라진다. 다만 반 울뿐이다 멀 비것 가튼 걱정이 팔렷던 세간을 다시 찾만한때와도 가치 대번에 마음에 든든해진다.

二月論報

女性 二月号

▲前進! 前進! 支那事變畵報
▲新支那의직업女性들 (아나운서 女巡査等)
▲女性의銃後活動 (獨逸及英國)

中等學校 合格秘訣을 말하는 座談會

出席人士 金元圭 金泰勳 李哲圭 辛鳳祚 宋今璇 ◇★◇

朝鮮女子賣買史 柳子厚

芬蘭文學에對하야 金晉燮

편지讀本 李秉岐

香山時調紀行 趙鏞薰

하르빈白系露人女學生生活記 金聞

小資本家庭副業 成功秘訣

特輯 養鷄 趙春光 養蜂 尹愼榮 養兎 桂鎔根

▲主婦의말 李敬媛
▲시집만가면 鄭鳳得
▲女性과生活의潤澤 李宣英
▲海外漫畵 ▲米國婦人의化粧代
▲女性界動靜

短篇 아름다운노을 白信愛

連載小說 愛人 安懷南

詩 아름다운생각하나 金珖燮
朝鮮女流漢詩選譯集 金岸曙
港口 張萬榮
隨筆 그리운꿈 鄭人澤

異性間의友情 李孝石

少年刑務所見參記 楊美林

職業所窓口에 비친女性風景 鄭圭哲

하로에도여러십명씩의부인네가직업소개소를 차저온다. 귀부인도잇고도망해온젊은색시도잇다. 그들은어떠케취급하는가?

蘇聯에게蹂躪된芬蘭 咸尙勳

衣粧美와사치 (女性時評) 高凰京

想像妊娠이야기 金雄奎

▲女性創刊四週年記念原稿募集 ▲婦人常識 ▲家庭메모 ▲프로무나-드 ▲海軍航空隊의重慶爆擊 ▲敵의冬季攻勢

現存英米女流小說家群像 金永石

韓孃刺傷犯公判記 蔡廷根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二十錢(送料二錢)

産米增殖의 要因
封建的生産時代脫却
❶ 朴鍾秀

朝鮮의 米穀生産이 封建的生産을 버서나고 近代的生産의 機構를 가추게된것은 年代로보면 明治末年—大正初年當時이다. 即, 日韓併合을 앞두고 또는그것을 契機로 움지기는 모든 改革運動과 함께 朝鮮의 經濟는 資本化過程의길을 急進하고 農業도 함께 이곳에 起點을두고 新時代로向하여 움지긴것이다.

明治四十三年부터 開始된 土地調査事業은 封建的土地制度를 淸算하고 所有權의 確定을 함으로써 朝鮮의 農業即 朝鮮의土地로向하는 沿治한 資本에 契對하여 그經營의 可能性과 確實性을 주게되엇고 明治三十九年, 水原에 勸業模範場을 設置하여 朝鮮農業을 對象으로 技術的研究와 指導를 開始하게되어 特히 米의品種改良과 內地로부터 新品種을 가저오게되엇다. 이두가지의事實은 朝鮮의米穀生産을 根本的으로 變換케한 直接의原因이다.

이와가튼 事業이 朝鮮의米産에 얼마나貢獻하엿는지 이것을 數字로 보기로하자. 即 事業을 開始하여 얼마안되는 明治四十三年과 그後五個年을 經過한 大正四年마의 耕地와 收穫量과 反當收穫을 比較하면 第一表와갓다.

第一表

	耕地面積 千町	收穫量 千石	反當收穫 石
明治四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 反當收穫이 一斗八斤三合 約二割의 增加를보게된것 또 이만한 反當收穫이 一時的이 아니오 거의 一定한數字로 漸次 增加途上에 잇다는것은 이 事業의 效果를 엿볼수잇는 事實이다.

封建的生産의 形態를 揚棄하지안코면안될 明治四十年代의 朝鮮農業으로써 이두가지의 事業은 當然 實現하지안코면안될것이엿스나 또한가지 朝鮮의 米産—그中에는 米産에對하여 拍車를 加하게된것은 內地의 食糧問題이다. 內地의 食糧은 米穀이 그大宗인바 이 大宗인米穀의 內地에 잇서서의 生産狀態는 그것亦是若干의 增加狀態에 잇스나 벌써 內地米産은 飽和狀態에 잇다.

第二表 內地의米穀産出, 消費額年比較 (單位千石)

年	産出額	消費額	不足額
明治[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正[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 明治三十六年부터 同四十年까지의 五個年平均産出額 四千三百八十六萬二千石과 昭和八年부터同十二年까지의 五個年間平均産出額과를 比較하면 二千六百五萬六千石의 增加를 보이고잇스나 産出額과의差額인 不足分에잇서서는 前者의 四百六十七萬四千石은 後者의 一千二百七十九萬一千石에 比하여 約그三分의一밧게되지 못하고잇당. 이만치 內地는 內地만으로 內地의 主食糧을充하여일을수업는 狀態에 잇다.

예부터 일어나려오는 人口와 食糧生産의 比率의 考察가 即 內地食糧問題의 焦點이다. 新時代에의 米穀産出에 米穀消費量을 보면 第二表와갓다. 內地의 米穀生産力은 거의 飽和狀態를 이루어 아무리 改良技術을 施하여도 [illegible] 그原因을 闡明한다면 첫재는 內地米穀生産力自體가 新作技術로 본다든지 生産費로 본다든지 그것이 容易하게 大幅의 增産을 엇기困難하여숭이오 둘재로는 朝鮮, 臺灣, 其外 內地等의 大規模的新興米産地의 産品이 廉價한米産地인 內地市場을 壓迫하기때문이다.

이와가튼 食糧米의 絶對不足의 事情은 土地制度가 變革되고 併合當時와는 飛躍的增加를 보이게된 朝鮮의 米穀生産力에 對하여 그不足分의 補充을"안힐"하게된것이며 土地制度가 新興의 産業으로하여 確立되어잇다하더래도 아직 近代的米産地로서는 新興朝鮮內에서잇고 아모로 米穀生産力을 擴充할條件가 充分한 朝鮮에서 內地食糧補充策의 實現을 보게되엇다.

內地食糧米補充의 使命은 단지 朝鮮農이아니라 臺灣에도 同一하계 時期만은 다르지언정 同一하게 施行하게된것이오 內地自體에 잇서서 米穀增産은 米穀生産에 終始하는 勞力에 [illegible] 朝鮮은 米穀生産을 企業化한 [illegible]

分하供給하는 [illegible] 內地의 米穀生産力은 거의 [illegible] 農村의 所有하는 노동力이 [illegible]

朝鮮의 農業을 其本으로하여 어디까지 耕作地의 確大 擴大를 [illegible] 다하여도 勞力을 占하고 있어 [illegible]

朝鮮의農業을 近代的토대에 올려 其所得을 [illegible] 土地改良事業을 施行하여 土地改良事業이 그 것을 目標로하는 産業革命의 一方 [illegible] 資本主義的米穀生産에 適應하는 이두가지 [illegible]

이로써 大正九年에 이르러 「朝鮮産米增殖計劃」은 當時 下에 朝鮮의 米穀增産의 背景으로 이와가튼 內地와 朝鮮과의 連 關係아래에서 于今까지 그 經營을 보면서 進展되어오는것에 무엇보다먼저 認識하지안코는 안된다. 더구나 東亞新秩序下의 産米增殖問題도 亦是同一한 範疇에 屬한다고할수잇다.

事業資金統制强化
重點主義를採用
資金調整의標準改正

總督府에서는 事業資金統制를 一層强化하기로 決定하고 一月一日부터 金融機關의 自治調節의範圍를縮小하여 貸出限度를引下하는바 다시資金調節의 標準을 改正하여 物資의 照合하여 資金統制의 重點主義를取하고 時局下生産力擴充의 計劃統制를 强化하기로되어 目下財務局에서 改正案을 大藏省과 折衝하고잇는데 今月下旬이나 느저도 來月初旬부터 實施할豫定이다. 今回의 改正內容은 內地에잇서서 十二月十五日에 改正實施한 標準改正에 朝鮮의特殊事情을 加味한것으로 改正內容은 如左하다.

一, 現在甲에는「軍需에直接關係잇는 産業及이와密接한關係에잇는 基礎産業으로서 現在事業設備가不足되는 又는時局關係와 需要가激增되어 其結果事業設備의 不足을豫想할것으로 豫想되며 따라서 事業設備의新設, 擴張을안하는것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것의事業에 對하여는 標準을引下할것 三, 事業資金調整標準中乙의「다」 及內에屬하는 事業等에關한것 의二段階에 區別하고잇던바이것을 改正하여 甲의「가」에 는 生産力擴充計劃産業及民需(部分品을包含)製造業及航空機(部分品及附屬品을包含)製造業을置케하고 甲의「나」에는生産力擴充計劃及 軍需에密接한 關係잇는産業으로서 今後事業設備의擴充又는改良이 必要한것을 屬하게할것

二, 現在이미事業設備의 新設擴張을본結果 今後其新設擴張이 必要치안는 事業及原材料의關係等으로보아 此際事業設備의 新設擴張을 當分間不要하는 것에對하여는 事業의遂行에支障을 齎來치안는 程度의 設備의改良 又는 店舖 工場事務所等의 安全及 保健上의見地에서 必要한改良及 災害에依한 設備의復舊에對한 貸付에對하여는 特別한 取扱을하게 하나 이點에對해서도 從來의 自由貸付의 限度를 撤廢하고 一件의金額 五萬圓以下의 貸付에對해서도 總督府에 協議할것

預金八億六千萬圓
貸出十五億突破
昨年末現在全朝鮮銀行狀況

全朝鮮銀行의 客年末現在預金 貸出高는 預金八億圓, 貸出十五億圓을 突破하는 未曾有의 大記錄을 示現하엿다 即預金總計는 八億六千七百八十七萬四千圓 貸出總計는 十五億二千二百六十四萬圓으로서 이것을 前月末에 比하면 預金에 잇서서 六千九百十一萬七千圓, 貸出에 잇서서 九千八百四十六萬八千圓의 各其新記錄膨脹인데 其內容은 如左하다(單位千圓 △印減)

◇預金

	十二月末	前月과比
定期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十二月末	前月과比
證書	[illegible]	[illegible]
手形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割手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또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에잇서서 一億四千三百五十六萬六千圓, 貸出에잇서서 四億五千三百八十萬八千圓의 各其大膨脹이엇다

預金과貸出減少
十五日現在·京城組銀狀況

一月十五日現在 京城組合銀行預金貸出帳面은 預金三億六千七百七十九萬四千圓으로 前年末에 比하여 一千六百三萬三千圓의減少이나 前年同期에比하여서는 一億一千三百八十一萬九千圓의 增加를 示하엿다 貸出은五億七千七百三萬四千圓으로 前年末보다 一千四百八十九萬一千圓의 減少이나 前年同期에比하여서는 二億三千六百八十六萬四千圓의 增加를 示하엿는바 그內容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前年同期比增減
▲預金		
定期	[illegible]	[illegible]
當座	[illegible]	[illegible]
特當	[illegible]	[illegible]
通知	[illegible]	[illegible]
諸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		
證書貸	[illegible]	[illegible]
手形貸	[illegible]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illegible]
割引手形	[illegible]	[illegible]
荷爲替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證券所持增加

一月十五日 現在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高는 六億二千三百八十六萬八千圓으로 前月末에比하여 十六萬三千圓의 增加이오 前年同期에比하여 一億三千四百六十七萬圓의 增加를示하엿다

漢銀利川支店
設置케된經緯

漢銀에서는 今般 京畿道利川邑에 支店을 設置키로되엇는데 野田頭取는 如左히 말한다

京畿道의 利川과 驪州는 겨우 四里를 相距하엿슴뿐으로 極히 近距離인데 利川에는 商銀支店이잇고 驪州에는 當行支店이잇서 너무近接된關係上 從來 兩支店間에는 設分區域이 잇고 서로일하기가 不便하엿다 이點에 對하여 財務當局에서도 考慮하고 또兩銀行에서도 適當한措置를講究하고자 생각하엿는데 今回에 地方銀行相互協調의大乘的見地에서 商銀에서는 大東亞建設의 使命達成에 努力하고자한다 金融機關의使命達成에 努力하고자한다

無償으로讓渡
▲商銀頭取는 如左히말한다

當行의利川支店은 大正七年七月에開設한것으로 從來永年間同地方에 唯一한銀行으로서 因緣이기프스나 先年同業漢銀이 驪州에同行의支店을 創設하기에及하여 兩地의距離近接, 經濟事情同一關係上 狹小한 經濟圈內에同行의二支店이併立은 兩行業務經營上 豫期치안흔不便과支障을感하게되엇스므로 當行支店의業務를現狀대로漢銀에移讓하여 其支店을閉鎖하고 漢銀은 이것을繼承하야後同行支店으로서 業務經營에當케되엇다

朝鮮電力優位性
內地에서도認定!
化學工業等의躍進을期待

最近內地에서는 電力飢饉이深刻한것이잇서政府에서는 電力發電事業의 積極的擴充을 圖할方針을 決定한바 右에伴하여 朝鮮의發電事業의旣定計劃及朝鮮水力電氣計劃을 認定하고 資材配給에對하여도 企畫院의 諒解를엇게된것은 內地에서 朝鮮의電力資源의 優位性을 認定한것으로서 注目된다

內地側은 從來朝鮮에對한認識을缺하여 電力事業에 對해서도新規擴充을不好하는 傾向이看取되고잇던바 今年內地는旱害에依하여 俄然電力飢饉에빠지고硫安其他 化學事業의 減産을보고잇는데 對하여 朝鮮은 이러한 故障이업시 자못順調이오 硫安生産其他化學生産은 모든增産을보고잇는 狀況으로 이點이內地에 朝鮮의電力資源豐富, 優位를認識시키는機會로되어 今回旣計畫及新規計畫에對해서도 大體容認된것으로 今後 朝鮮電力의一段發展及이와連結된硫安, 알미, 마네, 特殊鋼等의 化學製鍊事業의 躍進이期待되고잇다

穀商組合解體
京城府白米配給組合設立協議

京城穀物商組合에서는 昨年十七日午後一時부터 府內長谷川町公會堂에서 臨時總會를열고 京城府白米配給組合設立에 對하여 여러가지 協議를하엿다 即 從來京城府白米配給에對하여는同穀物商組合이 京城糧米業商組合에서 白米의供給을 바더一般府民에 配給하고잇던바 最近 京城府食糧配給組合이 設立되어 府內에잇서서의 米穀及雜穀의 配給統制를 하게되엇스므로 同穀物商組合은 自然解體 情勢로되엇스므로 今回京城府食糧配給組合의 命으로前記京城府白米配給組合을 設置하게된것으로 京城府가 指定한 有力한穀物商으로써 組織하고 京城府內의白米配給統制에當하기로되엇다

內外地聯務官會議

一月十四日부터三日間 大藏省專賣局에서 內外地聯務關係官會議가 開催되는데 朝鮮에서는 厚地鹽務課長外局員數名이 出席케되엇다 議題는 昭和十五年度中 近海各地方의鹽需給에 內地及朝鮮同輸移出可能數量, 價格及

石炭配給統制
全面的實施
❶ 統制規則要旨解說

石炭의 配給統制를 圖謀키爲하여 朝鮮總督府에서는 昨年十二月一日附 府令으로 全十五條의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을發布하엿는데 그中 第九條第十二條(使用者에對한命令의規定)及第十一條(統制團體, 配給團體石炭生産者, 石炭販賣業者又는 石炭使用者(統制團體, 配給團體, 石炭生産者及 販賣者에對한命令의規定)의 報告其他檢査에關한規定)의 二條만은 即日부터 施行하고 그外第一條부터 第八條까지의 八個條와 第十一條와의 九個條에對하여는 오는四月一日부터 이것을施行할것이며 其他第十三條로부터 第十五條까지의三條는 五月一日부터 이것을施行할것인바 今般그要旨와內容에對하여 一般의理解를要請하고 實施에 適應이엇을 期待키爲하여 總督府殖産局燃料課에서는 다음가튼 府令에關한 要旨解說을 發表하엿다

殖産局燃料課發表

現下緊迫한 石炭需給의 情勢에 對處하고 그調整을 圖謀키爲하여 昨年十二月一日附 朝鮮總督府令으로써 朝鮮石炭配給統制規則이 公布된것은 이미周知된事實이나 本令의施行에依하여 今後朝鮮內에잇서서의 石炭配給은全面的으로 統制强化되는 結果로서 從來當事者間의 自由取引에 맛겨두엇던것이 朝鮮總督의 一元的監督下에 所定의手續을 履行치안코는 石炭의販賣購入又는 使用이 不可能하게되엇다 이와가치 石炭에잇서서도 他重要物資와 同一하게本格的 統制의段階에일르러서 石炭은 工業原料及 燃料로서 그重要性이 그 使用되는方面이 廣汎한點에잇서 他物資의比等되는바가아니어서 統制實施의影響은 極히 深刻한바가잇다고생각된다.

本令의全面的實施期日도 次次 切迫하여오는 本令의 內容에對하여 生産業者, 販賣業者及使用者諸位가 充分한 認識과理解를要請하며 今後石炭統制의 運營에 遺憾이업기를 期하려한다.

다음에 生産業者, 販賣業者, 使用者別로 統制의方式 其義務及諸般의手段等에對하여 說明하고 併하여 統制團體及配給團體 의 主動機關인 統制團體及配給團體에 對해서도 說明하엿다.

一, 統制團體及配給團體

1, 其機能 朝鮮總督은 統制에關與하는 團體로서 統制團體及配給團體를 指定할方針인데 統制團體는 朝鮮總督의 指示에따라 其團體員及 配給團體가 其團體員에게 配給하는 販賣指示書의 內容을 統制團體員又는 配給團體員이 其配給의 可否等을決定하고 配給團體는 其團體員을 統轄하는 것이며 配給團體는 朝鮮總督監督下에 決定되어잇다

1, 其所管 統制團體의指定을 받은 其團體員에對하여 其主要한任務는 販賣指示書를交付하는것이다 그러나 配給團體는 單只그것을發行할뿐으로 其內容의決定은 統制團體의 所管에 屬한다

2, 指定豫定의 것 現在의朝鮮石炭統制組合及朝鮮無煙炭統制組合은 統制團體로서 그것을 組織하고잇는 朝鮮有煙炭組合及朝鮮無煙炭配給組合及 輸入炭組合 內地炭移入組合은 配給團體로서 指定하여두고 配給團體와 必要가잇는 境遇에는 追加指定을할것이다

二, 生産業者, 販賣業者의 境遇

(가) 朝鮮總督의指定한 配給團體의團體員인 生産業者又는販賣業者는 其所屬하는 配給團體의 交付하는 販賣指示書에依하여 販賣하는것을 原則으로하는데 統制의 方式은 一個가잇다

(나) 配給團體員이아닌 生産業者又는 販賣業者는 其販賣에對하여 直接朝鮮總督의 許可를 必要로함 許可申請의 樣式은 所定의것에 依할것

(다) 特殊한 用途及小口販賣의 經過 生産業者又는 販賣業者가 御料品及船舶用品은 上記의例外로서 使用하는 石炭을 販賣하는 境遇 及一販賣業者又는 一使用者에對한 一販賣數量이 每期月平均三十噸을 超過하지안는 小口의 販賣에對하여는 上記의手續이 簡易化된것을 要하지안는다 每期月平均三十噸이라는 考慮하여 每月平均三十噸이라는 販賣數量이 換算하면每期六個月間의 販賣數量이 百八十噸이라는것이다

2, 帳簿記載義務及報告義務 生産業者, 販賣業者는 每月의實績에對하여 所定의事項을 帳簿에記載할것을 要하고 또其事項을 翌月十日까지에 朝鮮總督及道知事에게 報告할것

但 團體에잇서서 配給團體員의 境遇엔 其配給團體에 一括하여 提出하면 配給團體가 그것을 提出할것

3, 需給調整命令及帳簿檢査規定 朝鮮總督은 需給調整上必要하다고 認定한境遇엔 生産業者, 販賣業者에게 命令의 內容은 자못廣汎하고 또其效力이나 販賣指示書에 依하는데 命令할수가잇는 者의 帳簿其他의 檢査를 할수잇게되엇다

時局經濟懇談會
官民一致合理的統制

京城商工會議所主催 時局經濟懇談會는 十八日午後二時부터 同會議所 第一會議室에서 總督府側으로부터 穗積殖産局長 井坂商工課長以下 山本, 岡部兩事務官, 京畿道側으로부터 李産業課長, 帛田經濟警察課長, 京城府側으로부터 相原總動員課長, 梅木勸業課長, 京城側으로부터 三木 京城川會頭, 伊藤理事以下 各關係者와 各業界側으로부터 高井朝鮮綿絲商聯合會長以下 各組合長等約七十名出席으로 時局經濟對策에對하여 檢討하엿다 即新東亞의 長期建設期에 入하여 我國戰時經濟는 去益 統制强化되고 此時國策을完遂키爲하여서는 一般 商工業者는 모든犧牲을참고 國策線에相應한 營業政策樹立에關하여 充分히檢討할일이 그 實題에 發키로되엇는데 當局에서도 民間業者의 意見을 聽取하고 어떤程度의協力을주어 官民一致의合理的統制를加할것으로보이어 그前途는 注目된다

株式 人氣安定
採合

今日의市勢 十八日

前場採合 今朝는 東新 四十五圓九 鐘新 低四圓 低인 百四十一圓九 鐘新 一低인 百七十九圓一 鐘新五高인 百十八圓九에 區區寄付된後 東新은 若干의 押目買가나와 二圓强高로戻되어 結局東新百四十二圓六, 大新七十六圓丁, 鐘新百十九圓丁에 大引

後場頭重 後場은 各一高인 東新百四十二圓七, 鐘新百十九圓一에 凡鋪寄付後頭重商狀을 呈하엿다

延取 無實買로 一不成

前場不成 依然 買가全無 이어서 不成에 꿋치엇다

後場傍觀 後場도 亦是賣買不成裡에 終始하엿다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全然休止狀態
市場員은十六名

延取市場의 市場員은 左記十六名인데 一月四日開場後一二日間形式的賣買이꾸치고 不成이本年付値하는 實情이다 米穀配給의 新機構로서 歷史的脚光미테 誕生된 이市場이 이러케全然休止狀態에잇는것은 再檢討할必要가잇고 市場前途와 市場員의今後經營이 問題視되어잇다

▲市場員 新田義民, 山本源作, 堆浩, 鄭源符, 桑野健治, 蓮綺七, 吉村榮左衛門, 內海淸藏, 綿反鍋, 康, 賀夏, 家弓矢一郎, 細谷仁三郎, 田中鶴次郎, 脇田春次, 都宗太郞, 山本一男

海外經濟 十七日

[illegible]

現物底堅

現物은 大體로一高一低이어서 區區한商狀이나 材料의 品薄은 依然底堅의모양이어서 本日東新은 一圓五高인 四十六圓三濟까치 鐘紡은 一圓高인 二十四圓丁 東新은 一圓高인 八十一圓을 暗示한다

今日現株市勢 (正午)

[illegible]

情勢展開待

輸出의 投物續出을 契機로 東新은 百四十一圓丁의 近來低價를 示한後 겨우下止모양이어서 今朝도 百四十二圓臺에서 堅調裡合을 보고잇는데 大體로 人氣도 淸濁合을 보아 新內閣의 具體的施策을 注視하고잇는 狀態이다 그런데 藤原商相의 留任과 貿易省設置에對하여 反對의意見을 明白히하는 等 新內閣에依해서도 國內改革은 希望이적게되엇스므로 期待에 背反된感을 가지고잇는모양이나 米國 新內閣에對하여는 英米側에서는 好意를 가지고잇서 今後 對米, 對英交涉이 進展을 볼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므로 投物一巡과 함께 押目買人氣가 擡頭하고잇기는하나 新內閣에 性格이좀더 明確히 되기까지는 積極買도 躊躇되고 잇서보인다

寸鐵

▼…商工振興은 非常時局에 在하여서도 藤原商相의 反對.
▼…貿易振興은 非常時局改革, 在人物이라고主張, 方法은 어쨋든 目的만은 達成하면그만?
▼…地米計劃에依한 十六萬三千町步의 土改事業은 土改事業의 擴張을 認定.
▼…水利組合에 맡서이 안생기고 利益이 均霑되도록 힘써야 할일.
▼…昨年十二月의 京城證券番號 十八萬圓이 前年의 二倍以上.
▼…非常時局下 年末의 自肅이 이래서야될까, 稱動은 國民實生活을 根底로부터 變革시켜야만 有効.
▼…四億五千萬圓의 鮮銀券發行으로 紙幣의 量이 이곳에쌓여야, 의적으로 反映, 정말重요點하라.
▼…인플레防止에는 돈파물의 統制强化外無路.
▼…事業資金統制를 朝鮮서도 重點主義로 强化코자 折

經濟消息

○商銀定時總會=朝鮮商業銀行에서는 來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同行樓上에서 第六十七期定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左記事項을附議
一, 第六十七期 (昭和十四年下半期) 營業報告書, 貸借對照表, 財産目錄及損益計算書承認의件
一, 同期利益金分配案承認의件
三, 支店(利川)廢止의件 四, 定款變更의件 五, 取締役辭任氏 同井上淸氏, 同金顯五氏, 同邊 辰四氏任期滿了 改選의件 六, 代表取締役選任의件

商銀의 利益金處分案(一分增配)은 如左히 理事會의 決定을보엇는바 即如左하다 (單位圓)

▲當期純益金 三三〇〇〇 ▲前期繰越金 三〇〇〇〇 ▲當期利益金 二七〇〇〇〇 ▲法定準備金 三〇〇〇〇 ▲別途積立金 二〇〇〇〇 ▲配當平均積立金 三〇〇〇〇 ▲退職手當積立金 二〇〇〇〇 ▲配當金年五分(政府所有株를除함)三〇〇〇〇 ▲重役賞與金 六〇〇〇 ▲後期繰越金 [illegible]

○殖銀定時總會=朝鮮殖産銀行에서는 오는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同行樓上에서 第二十一回通常株主總會를 開催하고左記事項을 附議할터이다

一, 第二十一期營業報告承認, 貸借對照表, 財産目錄及損益計算書承認의件 二, 利益金分配案承認의件 三, 補助專務理事의件 四, 定款變更의件 五, 重役의件 六, 取締役一名缺員에伴한 補充의 件 等이다

當期純益金 [illegible] ▲前期繰越金 [illegible] ▲計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配當平均積立金 [illegible] ▲退職手當金 [illegible] ▲證券償却積立金 [illegible] ▲配當年八分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漢銀一分增配=漢城銀行에서는 오는二十六日 午前十一時부터 同行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할터인데 今期業績은 頗히 好調를 거듭하여 드디어 待望이던 一分增配가 實現을 보게되엇스며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單位圓)

[illegible]

○東一銀行總會=東一銀行에서는 二十九日 午前十時부터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如左한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하엿다 (單位圓)

[illegible]

○朝鮮無盡總會=朝鮮無盡株式會社에서는 來月七日東京에서本年度總會를 開催하고 懸案의 本年度事業計劃을 決定할터인데 二月下旬에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配當은 年九分方針

今日財界 十八日

◆米穀 (京城, 公定價)
玄米(京畿坊主) [illegible]
七分搗白米 [illegible]

◆雜穀 (京城, 卸賣價)

大麥	一六〇斤
裸麥	二二〇斤
粟	二二〇斤
大豆	龍山三等

◆綿 (單位十錢)

	今日寄付	大引	前日比
朝新	[illegible]	[illegible]	不變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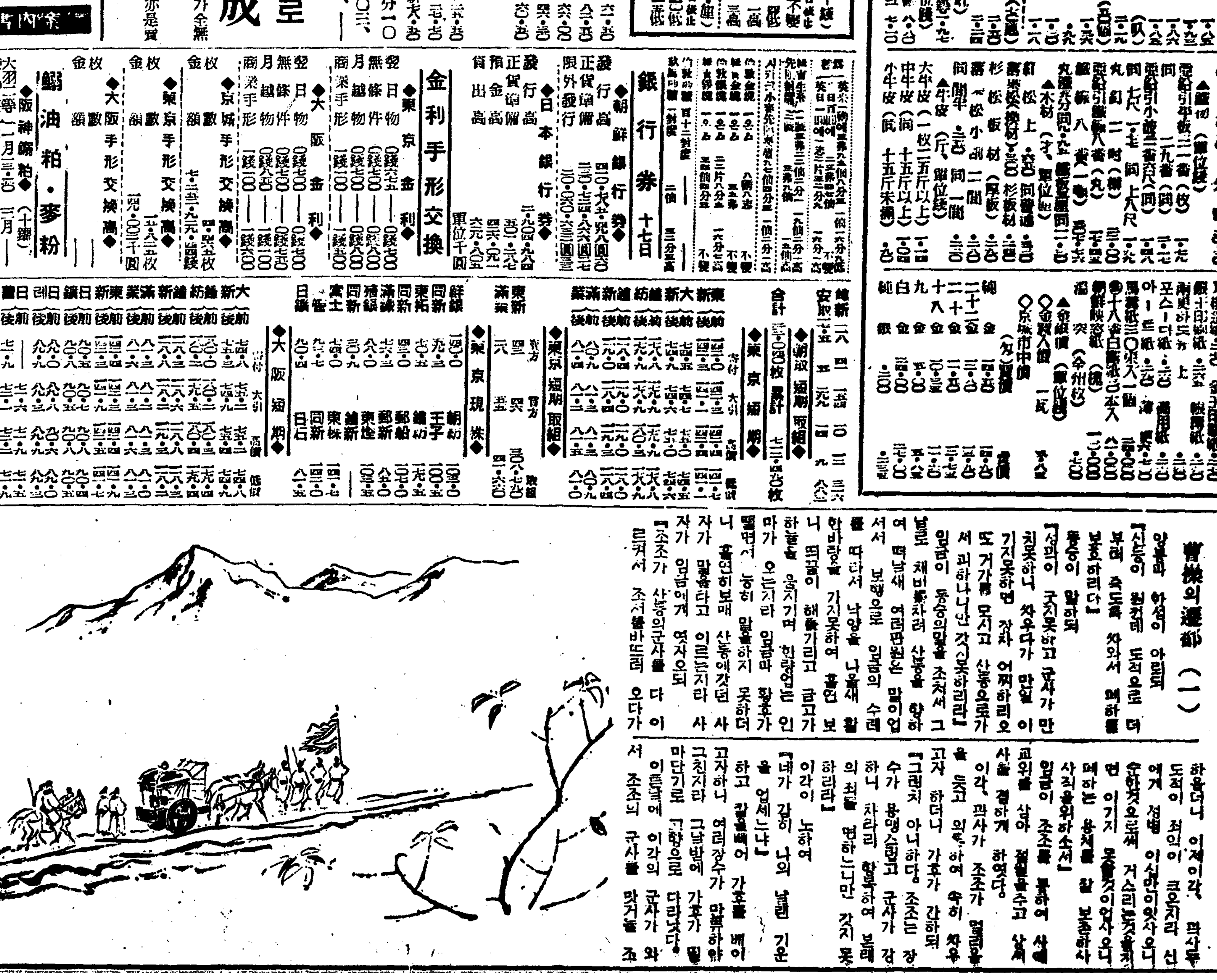
	今日寄付	大引	前日比
綿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 十八日

[illegible]

三國志
韓龍雲 譯
熊超 畫
(72)

曹操의遷都 (一)



양봉과 한섬이 아뢰되 「신들이 원컨데 도적으로 더부러 죽도록 싸와서 폐하를 보호하려다」

동승이 말하되 「성곽이 굿지못하고 군사가 만치못하니 싸우다가 만일 이기지못하면 장차 어찌하리오 또 거가를 모시고 산동으로가서 피하나니만 갓지못하리라」

임금이 동승의말을 조치서 그날로 채비를차려 산동을 향하여 떠날새 여러관원은 말이업서 보행으로 임금의 수레를 따라서 낙양을 나올새 활한바탕을 가지못하여 홀연 보니 띄끌이 해를가리고 금고가 하늘을 울니기며 헤량업는 인마가 오는지라 임금과 황후가 떨면서 능히 말을하지 못하더니 홀연히보매 산동에갓던 사자가 말을달고 이르는지라 사자가 임금에게 엿자오되 「조조가 산동의군사를 다 이르켜서 조서를바뜨러 오다가

이각 곽사가 낙양을 침범할 줄 듯고 먼저 하후돈으로 선봉을삼고 상장 열사람과 정병오만을 거느려 아페와서거가를 보호하나이다」

임금이 바야흐로 안심하더니 조금잇다가 하후돈이 허저, 전위등을 이끌고 이르러 군례로 뵈온대 임금이 위로하엿다 조금잇다가 조조의 보군이 이르렀더니 조홍, 이전 악진이 이르러 조홍이 아뢰되 「신의형이 도적의군사가 가까히오믈 듯고 하후돈이 혼저 당하기 어려울까 염녀하여 서 신등으로 하야금 먼저와서 도웁게 하엿나니다」

임금이 말슴하시되 「조장군은 진실로 사직의신하라」

「조장군은 진실로 사직의신하라」 하고 명하여 거가를 호위하고 나어갈새 홀연히 보하되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이끌고 온다하거늘 임금이 하후돈으로 하여금 두길도 나누어 맛게하니 하후돈이 조홍으로 더부러 두길도 나누어 마군이 먼저 나가고 보군은 뒤에 따르게 하여 힘을다하여 치니 적의 군사가 크게 패하는지라 머리만 버힌것이 만여급이라 이르는지라 조조가 상에드리엇더니 다음날에 조조의 대군이 군사를 성밧게 둔치고 호돈이 되어서 낙양 옛궁에 도라가서 하여금을 베이고 인하여 임금을 뵈서 절하니 임금이 허리를 펴라하시고 위로하엿다

조조가 아뢰되 「신이 이미 나라은혜를 입삽고 마음에 삭여갑기를 도모

하고 다시 하후돈으로 하여금 군사를거느려 좌편으로 나가게 하고 조인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우편으로 나가게하고조조는 스스로 중군을 거느려 길새 북소리가 한번나며 삼군이 일제히 나가니 적병이 당치못하고 크게 패하여 다라나는지라 조조가 친히 칼을끌고 밤이새도록 쪼처죽이매 죽는재국히만하고 항복하는자도 수가업는지라 이각과 곽사가 서편을 바라고 도망할새 초상집 개처럼 바뿌면서도 몸을 용납할곳이 업서서 다만 산중으로 드러갓다.

조조가 군사를 돌려서 낙양성밧게 둔치니 양봉과 한섬이 의론하되

「이제 조조가 큰공을 이루엇스니 반드시 크게 권세를 잡을지라 어찌 우리들을 용납하리오」

하고 드러가서 임금에게 아뢰어 이각과 곽사를 쪼처가서 죽이겟다하고 본부인마를 거느리고 대량(大梁)으로 갓다.

하룻밤은 임금이 조조를 불러서 이각과 곽사를 처서 이긴공을 보고하는데 도적이 적의이 크오지라 곽사부

이라하고 이각이 노하여 「네가 감히 나의 날랜 기운을 엄세는나」

하고 칼을빼어 가후를 베이고자하니 여러장수가 만류하야 그친지라 그날밤에 가후가 필마단기로 고향으로 다라낫다.

이튼날에 이각의 군사가 와서 조조의 군사를 막거늘 조

이각과 곽사가 항복하니 가후가 간하되 「그렇치 아니하다 조조는 장수가 용맹스럽고 군사가 강하니 차라리 항복하여 본래의 죄를 면하느니만 갓지못하리라」

가후가 이각과 곽사가 조조가 멀리온 것을 듯고 의론하여 속히 싸우고자 하더니 가후가 간하되 이각 곽사가 조조를 불러서 사직을위하소서 폐하는 용체를 잘 보존하사 임금이 조조를 불러서 원기를 삼아 절월을주고 상서를 겸하게 하엿다.

면 이기지 못할것이오니 순히한것으로써 거스리는것을 치